

# “이병헌 · 박정민 캐스팅, 기적이었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최성현 감독 인터뷰

“기적과 행운이 붙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17일 개봉한 휴먼 코미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시나리오와 연출을 도맡은 최성현(49) 감독의 얘기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 최 감독을 만나러 가기 전 그에 관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기지는 깜짝 놀랐다. 그 흔한 포털사이트 프로필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 감독 스스로 “저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고 말할 정도로 경력은 간단했다.

최 감독에 따르면, 그는 1969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50세가 됐다.

“시나리오가 좋아 스타급들 출연 제의에 흔쾌히 승낙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자 이번 작품 정성껏 연출”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나와 만화 스토리를 오래 쓰다 TV 드라마 극본 집필을 준비했다. 그러다 2010년 쓰게 된 영화 시나리오가 ‘운 좋게’ 영화화됐다. 바로 2014년 4월 개봉해 385만 관객을 모은 현빈·정재영·조정석의 사극 ‘역린’(감독 이재규)이다.

이후 그는 직접 쓴 사극 시나리오로 감독 데뷔를 준비했으나 제작사 사정으로 지연하던 중 형제, 가족 이야기를 담아 쓴 시나리오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JK필름의 수장 윤재균 감독을 매료시켰다.

윤 감독의 권유로 그는 아예 연출을 맡아 이번엔 깜짝 데뷔하게 됐다. 덕분에 최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두 개가 됐다. ‘역린’ 집필과 ‘그것만이 내 세상’ 연출이다.

“사실 다른 사람이 메가폰을 들더라도 언젠가 꼭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연출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행운과 기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사실 이 작품에서 ‘김조하’ 캐릭터를 쓰면서 떠올린 배우가 (이)병헌씨였어요.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병헌의 전작들을 읊었다. 1990년대 TV드라마부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최성현 감독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근 영화까지... 역시 이병헌 팬인 나에게도 반가운 작품들이었다.

아무리 이병헌을 모델로 캐릭터를 구성했다고 해서 이병헌이 출연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모든 영화, TV 드라마 제작진의 ‘출연 요청 0순위’답게 매일 책(시나리오, TV 드라마 대본)이 산처럼 쌓인다.

하지만 최 감독은 일면식도 없던 그에게 ‘감히’ 시나리오를 보냈다. ‘맡겨야

본전’이라는 생각보다 ‘못 먹는 감 찢러나 보자’ 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이병헌도 사로잡았다. 그는 바로 답을 했다. “출연하겠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었다. 최 감독이 내심 두려워했을 ‘유명 감독 기용 요구’ 등 일부 스타 배우의 ‘갑질’도 이병헌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병헌은 앞서 말했다. “시나리오가 좋았다. 신인 감독 작품인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었

다.” 최 감독은 “일부 스타급 배우는 출연 여부를 분명히 답하지 않고 시간만 한참 끈다는데 병헌씨는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이병헌은 최 감독에게 천군만마였다. 좋은 시나리오가 JK필름 제작, 이병헌 주연의 양 날개를 달자 다음은 더욱 술 풀려나갔다.

박정민이 조하의 아버지 다른 동생이자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오진태’를, 윤여정이 두 사람의 어머니 ‘주인숙’을 기꺼이 맡았다. 박정민은 지난 2016년 ‘정통영화제’ ‘백상예술대상’ 포함 신인상 6개를 쓸어 담은 ‘신인왕’, 윤여정은 60대 이상에서 명실상부 최고 배우이다.

조연도 한지민을 비롯해 문수, 김성령, 황석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진태의 짝궁인 통통 튀는 매력의 ‘변수정’ 역에 신에 최리도 뽑혔다.

“제가 감히 꿈꾸지 못 했던 꿈같은 캐스팅이 이뤄진 것이죠.”

최 감독은 그저 행운과 기적일 뿐이라고 자세를 낮췄지만, 이는 좋은 시나리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과 영화 ‘1987’(감독 장준환)과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코코’(감독 리 언크리치)가 한창 흥행하는 전장에, 그것도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메이즈 러너: 데스 큐어’(감독 웨스 볼)와 나란히 뛰어드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내 세상’의 초반 성적은 나쁘지 않다.

개봉일에 약 13만 명을 모아 약 23만 명을 들인 ‘메이즈 러너’에 이어 2위로 출발했다. 18일에는 약 11만 명을 끌어 약 17만 명을 들인 ‘메이즈 러너’에 이어 2위를 지켰다.

2위이긴 하나 그간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 첫 주말까지 반짝하다 2주차부터 바로 흥행세가 하락해온 것으로 볼 때 1위 점프도 기대할 수 있다.

최 감독은 “지난 가을 ‘범죄도시’가 약 688만 관객을 모을 정도로 대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작품이 좋으면 곧 빛이 난다는 것을요” 라면서 “우리 영화도 그럴 것입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흠수저 감독을 시나리오 하나만 보고 선택해준 배우들에게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어 미려하지만 정성껏 연출했습니다. 관객들도 배우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감독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말하며 빙글 웃었다. /뉴시스

## 지난 한해 윤종신의 행보 한장의 앨범속에 담겼다

‘행보 2017’ 26일 발매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의 2017년을 담은 ‘행보 2017 윤종신’이 오는 26일 발매된다고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행보 2017 윤종신’은 두 장의 앨범으로 구성된다. 작년 ‘월간 윤종신’을 통해 발표된 13곡과 전국 투어 콘서트 ‘윤종신 좋네?’를 통해 선보인 라이브 12곡이, 각각 ‘월간 윤종신 2017’과 ‘라이브 2017’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미스틱은 “2017년 ‘월간 윤종신’은 어느 해보다도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한다’는 모토에 충실했고, 특정한 주제나 장르에 구속되지 않은 덕분에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소개했다.

발라드, 힙합, 크로스오버, 시타팝,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를 과감히 넘나 들었다. 지코(2월호 ‘Wi-Fi’), 포티에디 콰트로(3월호 ‘마지막 순간’), 박재정(5월호 ‘여권’), 장재인(9월호 ‘아마추어’), 이규호(10월호 ‘나는 너’ 프로듀싱), 민서(11월호 ‘좋아’), 정인(12월호 ‘추위’) 등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뮤지션들과 어울렸다.

한편 윤종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투어 콘서트 ‘윤종신 좋네?’를 진행 중이다.

미스틱은 “2015년, 2016년에 열린 ‘작사가 윤종신 콘서트’가 ‘작사가 윤종신’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면 2017년 전국 투어 콘서트 ‘윤종신 좋네?’는 ‘싱어 윤종신’의 저력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뉴시스



### 고현정 주연 '리턴' 수목극 1위 자리 굳히기

배우 고현정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리턴’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수목극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SBS TV 수목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 연출 주동민) 2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9.0%를 기록했다. 전날 첫 회 시청률과 비교해 0.5%p 상승한 수치다. 같은 시간 방송 중인 경쟁작 KBS 2TV 드라마 ‘흑기사’(8.3%) 또한 시청률이 올랐지만, ‘리턴’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리턴’은 영화를 보는 듯한 빠른 전개와 몰입감, 고현정의 뛰어난 연기로 시청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1회에서는 의문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2회에서는 주인공 ‘최지혜’(고현정)가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나서며 모습이 담겼다.

이번 작품은 밀박에서 시작해 TV쇼 ‘리턴쇼’까지 진행하게 된 스타 변호사 최지혜가 치정 살인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도로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에는 대한민국 최상류층 인사 네 명이 얽혀있고, 최지혜는 담당 형사 ‘독고영’(이진욱)과 함께 사건을 수사해가던 도중 이번엔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고현정과 함께 이진욱·신성록·봉태규·박기웅·정은채 등이 출연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